

총장-뉴스레터 – 90 (2024-9-27)

아이성 정복 (여호수아 8-1-35)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여호수아 8:2)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하나님은 여리고 정복 이전에 그리하셨듯이 아이성의 운명이 결정되었다고 확실하게 말씀하신다. 그렇지만 여리고와는 달리 더 이상 첫 열매의 제물로 여길 수 없었기 때문에, 진멸의 정도를 낮추어 주신다.

아이 성 공격 (8:3-29)

여호수아는 이미 전날 용사 3 만 명을 선발하여 아이와 베엘 사이에 매복시켜 놓았었다(3,9 절). 아이성의 군사가 상당히 적은 것으로 보아(25 절) 매복 군사 3 만 명만 있어도 성을 점령하기에 충분했을 것이다. 그러나 아이 성 북서쪽 약 2 마일 지점에는 베엘이 있었고, 그 베엘에서 아이성을 지원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었기에 (17 절에는 실제로 베엘에서 아이를 지원했다고 기록) 여호수아는 군사 5 천 명을 추가로 선발하여 3 만 명의 용사가 이미 매복해 있는 지점에 매복시켰다. 여호수아가 창을 든다는 것은 복병들을 위한 하나의 신호이지만, 전쟁을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표이다.

반면에, 아이 성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자 급히 나갔다. 이것은 아이 성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격에 대해 아무런 작전도 없이 즉흥적으로 대응했다는 것을 말한다. 또한 성읍 뒤에 있는 복병들의 존재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이것은 또한 전쟁의 기본이라고 하는 경계와 정찰을 게을리했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이다. 게다가 16 절을 보면 여호수아의 유인책을 마치 저희들이 강해서 적들이 도망하는 것으로 착각하며 뒤 쫓았다. 17 절을 보면 그들은 성 밖으로 나가면서 성문조차 닫지 않았다. 아이 성 사람들은 전쟁에 대한 준비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재단을 쌓고 율법을 선포 (8:30-35)

여기에서 가나안 정복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멈추고, 가나안 중심부에 제단을 쌓는 사건을 다룬다. 아이를 정복함으로써 산지의 높은 곳에 이른 다음에 여호수아는 모세가 내린 지시를 수행한다. 여기서 모든 지도자들과 여인과 아이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자들을 포함한 전 백성 동동체가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에 대해 선포하는 말씀을 들었다면, 이는 이스라엘이 이미 가나안 땅에 완전히 정착한 때의 상황을 앞당겨 다루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여호수아는 모세가 기록한 방법을 따라 하나님의 명하심 대로 에발 산에서 단을 쌓았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 간 후에 여섯 지파는 축복의 산인 그리심 산에 서고, 여섯

지파는 저주의 산인 에발 산에 서도록 명령하였다. 이 때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가운데 서서 율법을 선포하면 백성들은 '아멘' 으로 화답하도록 했다(신 27 : 12-16). 그리심 산과 에발 산은 가나안의 브리스 족속이 거주하다 후에 므낫세 지파에게 분정된 지역으로 세겜 땅에 위치한 남북으로 마주보고 있는 산으로서 각각 해발 845. 7m 와 940m 의 높이에 이른다. 그리심 산은 남쪽에 있고 햇빛을 많이 받아서 수목이 울창하지만 북쪽에 있는 에발산은 그리심 산의 그늘에 가려져 있는 시간이 많아 나무가 거의 없고 황량해 보인다. 이런 이유로 해서 그리심 산은 축복을 상징하는 산으로 여겨진 반면, 에발 산은 저주를 상징하는 산으로 여겨졌다. 축복의 내용을 낭독할 때는 그리심 산에서 시므온, 레위, 유다, 잇사갈, 요셉, 베냐민 지 파가 '아멘' 으로 대답했으며, 저주의 내용을 낭독할 때는 에발 산에서 르우벤, 갓, 아셀, 스불론, 단, 납달리 지파가 '아멘' 으로 대답하였다.

생각하기

아이성 전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승리하였다. 이에 감사하여 이스라엘은 언약을 갱신하고 단을 쌓았다. 이스라엘이 정복 전쟁의 와중에서 이러한 종교의식을 거행하게 된 것은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 성 정복 과정을 통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유지가 가나안 정복을 완수할 수 있는 최대의 요건임을 깨달은 까닭이었다. 이는 오늘 우리들에게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유지임을 새삼 각성시켜 주고 있다.

독일의 종교 개혁자였던 마틴루터는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평소에 2 시간씩 기도한다. 그러나 요즘은 너무나 바쁘기 때문에 그 두 배로 기도한다". 말씀 묵상과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힘과 지혜를 얻는 것이 승리의 비결이고 진정한 행복의 길이다.